

순천시의회 농어촌특위, 자연재해 대책 마련 위한 회의

긴급회의 열고 지역별 집중호우 피해·복구 상황 파악·점검해 병충해 확산 등 2차 피해 막기 위해 약제 지원 필요 의견 모아

순천시의회 '농어촌발전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숙희, 이하 농어촌특위)'는 최근 여름철 농어촌 지역 자연재해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일 순천시에 호우경보, 산사태경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비가 내

려, 제방이 유실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농어촌 지역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어촌특위는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조속한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따라서 집중호우 이후 병충해 확산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약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장숙희 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폭우, 강풍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농

어촌 지역의 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해 피해 시설물 복구에 힘쓰는 한편, 농어촌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의회 농어촌특위는 장숙희 위원장과 최병배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형구, 박계수, 오행숙, 유영갑, 이명옥, 오광목, 김영진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22년 6월 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기자



보성군 미력면, 차훈명상·천연염색 체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보성군 미력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는 차훈명상과 천연염색이 선정됐다. 차훈명

코로나19로 지친 어르신 몸과 마음 치유 기회 될 것 기대

상 프로그램은 뜨거운 찻물에서 발생하는 차의 훈기를 숨을 통해 들이 마셔, 눈, 귀, 얼굴 등에 온기를 쬐어 전신 기혈을 조절하고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심신 수양법이다.

자치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로 많이 지쳐 있는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기정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쌓인 피로 해소와 함께 지친 일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여수시, 옥수수 브랜드명 '섬섬여수옥수수'로 확정

여수시가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대표 농특산물로 육성하고 있는 옥수수 브랜드명을 '섬섬여수옥수수'로 최종 확정하고 디자인 제작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수 옥수수 향토사업단과 용역사가 발굴한 브랜드명 5개의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 등 선호도 조사 결과 '섬섬여수옥수수'가 1위를 차지했다.

'섬섬여수옥수수'는 여수시 브랜드그림 참여자들은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방문일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섬섬여수옥수수'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해 시민 설문 등을 거쳐 디자인을 선정할 후 상표출원 할 계획이다.

또한 여수시청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5개의 우수한 네이밍도 발굴해 추후 옥수수 상품 문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설문조사와 향토사업단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모 우수작 10개 중 '섬섬여수옥수수'를 최종 확정했다"며, "특색 있는 디자인 개발로 여수 옥수수의 소비자 인지도와 상품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오상호기자

"지역문화 기획 배우고 고흥 문화도시 함께 만들어요"

고흥 문화도시 모뎀학교 워크숍 개최

고흥군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4차 법정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문화도시 추진으로 배양된 문화력을 바탕으로 '사람이 모이는 즐거운 땅, 모뎀 문화도시 고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람, 모뎀, 즐거움 사업영역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고흥군은 사람의 발굴 및 성장을 위한 군민 문화 기획인 '고흥 문화도시 모뎀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모뎀학교는 문화적 지평 확대와 고흥 문화생태계 육성을 위한 문화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실천인', '사회인', '문화인', '창조인'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민 30여명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모뎀학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고흥 문화도시를 만들어 갈 군내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7월 14일부터 개최된 모뎀학교 워크숍에서는 살지대연구소 최지만 소장, 문화융역 주성진 대표, 문화다움 오은영 연구기획실장, 모세한 문화도시센터장이 멘토로 참여하는 네트워

크형, 협력형 교육으로 문화기획 구상하기, 문화기획 현실화하기 등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주제별 분임 구성 등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진행하여, 참여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사회의 문제를 문화로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교육 참여자의 동기부여를 위해 교육 과정 중 기획된 프로젝트 총 4팀에 대해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1등(1팀) 50만원, 2등(2팀) 20만원, 3등(1팀) 10만원의 상금(고흥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문화도시 사업은 군민이 주

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드는 과정이며, 문화도시의 담론이 고흥군 문화의 격을 상징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군민들이 문화도시 사업의 다양한 활동 주체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민문화도시 플랫폼 '고흥 문화모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흥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위촉한 바 있다.

또한, 7월부터 도시경영 전문조직인 문화도시센터를 설립하여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흥 문화도시를 새롭게 그려 나가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광양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채용 협약

광양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포스코HY클리메탈, 광양만권일자리사업단과 '지역인재양성과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호 부시장과 지우환 ㈜포스코HY클리메탈 대표이사, 김성희 광양만권일자리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소재 관련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광양=심종섭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